

국제신문

Kookje Shinmun

2007년 4월 16일 (음력 2월 29일) 월요일 33판

한일해저터널 다시 '수면 위로'

부산시 첫 타당성 검토 착수후 쟁점 부상
 日, 사업 성사 대비 탐사터널 400m 뚫어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한일 해저터널 건설 구상이 최근 워크숍 세미나 등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부산지역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부산시가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여부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시민단체들도 반대운동에 나설 태세여서 찬반논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 내달 중순께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또는 거제도)과 일본 규슈 가라쓰에 이르는 약 230km 구간을 철도 등으로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워크숍을 부산발전연구원, 시 교통국, 교통관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개최했다. 이 워



크숍은 해저터널이 부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첫 작업이다. <관련기사 6면>

부산시 박종수 교통국장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일해저터널이 부산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따져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한일 해저터널 일본 본측 시발점인 규슈 사가현의 터널 시굴현장을 둘러보고 온 부산

지역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본격 공사를 위한 캠프가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저터널사업단의 초청으로 전국에서 300여 명이 단체 견학을 했다"며 "해저터널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단체 견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저터널 건설이 일본만 좋은 일 시키며, 경제성도 허구"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은 다음달 중 '한일 해저터널 득과 실'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한일 해저터널이 대선 국면과 맞물려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 '경부 운하'나 '열차 페리' 공약에 맞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변영삼 정순백 기자
 sbjung@kookje.co.kr

国際新聞

2007 年 4 月 16 日

日韓海底トンネル再び「水面上に」

これまで水面下に沈んでいた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構想が、最近、ワークショップセミナーなどが相續いて計画されるなど、釜山地域の争点として再浮上している。特に釜山市が海底トンネル建設の妥当性可否の検討に着手したのに続き、市民団体も反対運動に出る勢いで賛否の論争が本格化する兆しだ。

釜山発展研究院は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と関連し、来月中旬頃に日韓国際セミナーを開催することを 15 日、明らかにした。釜山市は、釜山（あるいは巨済島）と日本の九州唐津に至る約 230 km 区間を鉄道などで結ぶ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関連のワークショップを、釜山発展研究院、市交通局、交通関連の教授などが参加するなか去る 3 日に開催した。このワークショップは、海底トンネルが釜山に及ぼす影響を総合的に検討した初めての作業である。

釜山市のパク・チョンス交通局長はこのような動きに対し、「日韓海底トンネルが釜山の役に立つかどうかなどを検討するもの」と話した。

先月中旬に日韓海底トンネルの日本側の始発点である九州佐賀県のトンネル試掘現場を見学した釜山地域の市民団体のある人士は「本格的な工事のため基地が完備していた」と明らかにした。彼は「海底トンネル事業団の招待で全国から 300 余名が団体見学をした」といい、「海底トンネルの必要性の雰囲気づくりのため、韓国内世論を牽引する層を対象として団体見学が繰り返されていることを聞いている」と付け加えた。

しかし、「海底トンネル建設は日本だけに都合がよく経済性も虚構」という反対世論が少なくない。「釜山経済を生かす市民連帯」などは、来月中に「日韓海底トンネルの得失」を主題に市民討論会を予定している。政界でも日韓海底トンネルが大統領選挙の局面とかみ合い公約に採択された場合、「京釜運河」や「列車フェリー」公約に対抗する争点となる可能性が高いとみている。